**From the Roof of Africa**

 ***노틀담 수녀회***



 ***성령 총대리구***

 ***2017년 5월 소식지 9 3호***

***진두카, 알로이시아 어린이의 현존 10주년 기념***

알로이시아 어린이 10주년 기념식이 2017년 3월 4일, 진두카 여성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약 44명의 어린이들이 축하연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진두카 여성센터에서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알로이시아 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의 구성원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교육과 점심 식사와 의료적인 필요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7년 2월 10일, 묵티 수녀와 라슈미 수녀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메리 묵티 수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리 라슈미 수녀, 막달레네 수녀, 엠마 수녀, 마가렛 수녀, 윈프레드 수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피양성자들과 활성가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메리 사트야 수녀와 켈렌 수녀는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다른 수녀들과 피양성자들의 도움을 얻어 일하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축하연은 무척이나 잘 짜여지고 계획되었습니다. 메리 묵티 수녀, 파스칼리아 수녀와 두 수련수녀 메리 플라비아 수녀와 므웬데 수녀가 지원자들인 캐더린과 막달린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위해 아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날은 특히 *SND샤든 세계 선교*를 통한 은인들을 대표하여 온 샤든 관구의 메리 캐런 수녀와 메리 발레리 수녀, 마리 매닝 수녀의 따듯하고 아름다운 현존으로 빛났습니다. 메리 캐런 수녀는 자신의 학생들을 미래의 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가 시작되면서 10명의 아이들이 각각 그 프로그램이 현존했던 약 10년의 시간을 상징하는 초를 들고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들어와 초를 식탁에 놓으면서 지난 10년간 성령의 감도에 대한 감사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환영의 몸짓으로써, 또 축하연에 함께 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수녀의 노고에 답하기 위해 메리 캐런 수녀에게 장미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들의 노래, 시,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노틀담 수녀회를 통해 체험한 하느님의 보살핌, 사랑, 지지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마틴 아저씨와 동료들” 에 감사했습니다. 